

한라시론



양웅진

제주향토음식보존연구원장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유네스코(UNESCO)의 '글로벌 세계보존지역 연구·훈련센터'가 제주에 설립된다.

지난 11월 18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의 유네스코본부에서 열린 제40차 유네스코총회에서 '글로벌 세계보존지역 연구·훈련센터'의 제주도 유치 설립이 승인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 2009년 11월, 세계자연보존총회 제주유치 확정을 계기로 제주도는 '세계환경수도 제주'를 선언하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고 환경부와 함께 '국제보호지역 관리 허브로서의 제주도'와 '자연환경 분야의 선도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을 목표로 2012년부터 센터 설립을 추진해 왔고 마침내 그 결실을 맺게 됐다.

유네스코 자연분야 3대 타이틀을 모두 획득한 자연환경의 보고라는 제주의 이미지에 걸맞은 국제기구 유치는 제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낭보에 마냥 기뻐할 수만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세계환경수도 제주'를 선언한 이후 제주의 상황은 과연 어떠한가? 환경수도라고 선언할 만 한 그 어떤 노력이 진행되어 왔는가? 오히려 지난 10여 년 간 제주는 그 이전 수세기보다 더 많은 환경 파괴가 이루어진 섬이었다.

경제적 이득만을 위해 무분별하게

파헤쳐지고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 내지 못했다.

더구나 그러한 난개발의 배경에는 철저하게 개발론자들의 편에 선 도 백과 지방정부와 토호세력이 두텁게 형성돼 있었고 그러한 상황은 현재도 마찬가지이다.

제주 최대의 가치가 환경이고 그렇게 그 환경에 기대어 독특한 생활 문화를 형성해 왔으며 거기서 기인한 관광산업을 통해서 먹고 살아 왔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그래서 더 많은 관광객을 받아들이기 위함이라는 도지사의 고집보다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존 시설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자는 제2공항 반대대책위의 의견이 더 합리적으로 들린다.

기업소유의 부동산 가치 상승을 위해 어떻게든 중산간지역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동물테마파크보다 제주의 숲인 곳자왈을 보호하고 마을 공동체를 유지하겠다고 말하는 선출리 주민들의 목소리가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

최남단의 아름다운 절벽해안을 파헤쳐서 대규모 관광타운을 짓겠다는 중국계 부동산 회사의 사탕발림보다 당장의 수익보다는 말없이 묵묵하게 농사를 지으며 고향의 자연환경을 지키겠다는 송악산개발반대대책위 주민들의 반대 투쟁이 더 아름답게 보인다.

적어도 국제기구인 '글로벌 세계보존지역 연구·훈련센터'를 유지하고 유네스코 자연환경 3대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는 제주도가 '세계환경수도'를 지향한다면 말 뿐이 아닌 그에 걸맞은 행동을 보여줄 것을 제주 사회 전체의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기원한다.

사설

제2공항 특위 둘러싼 파열음 안타깝다

제2공항은 제주 최대 현안입니다. 문제는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찬반 대립으로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2공항을 추진하는데 가장 큰 난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의기 관인 제주도의회에서는 파열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당장의 수익보다는 말없이 묵묵하게 농사를 지으며 고향의 자연환경을 지키겠다는 송악산개발반대대책위 주민들의 반대 투쟁이 더 아름답게 보인다.

도의회 김장영 교육위원은 19일 제2공항 특위 위원 사퇴 임정문을 통해 "향후 활동과정의 중립성에 관한 의구심이 들고, 더 나아가 도민 신뢰까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육위원은 "상황에 따른 구성원 인원을 고려했을 때 특위에서의 제 활동과 역할이 매우 미미한 수준이 될 것"이라며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교육위원은 "특위 위원들이 도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결정한다면 제2공항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도의회 차원의 갈등 해소를 위한 제2공항 특위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어 걱정입니다. 제2공항 특위는 당초 청원 내용이었던 '공문화'가 결의안에서 빠진 데 이어 특위 위원까지 곧바로 사퇴하면서 말들이 많습니다. 이미 특위 구성의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의회 내부는 물론 도내 경제단체에서도 제기됐습니다. 앞으로 제2공항 특위 활동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2공항 특위는 그동안 제기된 우려를 말끔히 씻어낼 수 있도록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박원철 특위 위원장도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도록 더욱 신경쓰겠다"고 밝혀 기대됩니다. 그렇다고 제2공항 갈등 해결을 특위의 몫으로만 돌려선 안 됩니다. 도의회 모든 의원들이 제2공항 갈등 문제를 풀기 위해 똘똘 뭉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안타까운 어선 화재 실종자 찾기 집중해야

제주해상서 조업중인 어선에서 불이 나면서 선원 1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되는 안타까운 참변이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난 통영선적 연승어선 대성호(29t급)에는 한국인 선원 6명과 베트남 국적 선원 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골든타임을 감안하면 무엇보다 신속한 구조와 실종자를 찾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화재 발생경위는 아직까지 정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19일 오전 7시5분 제주해상서 서쪽 76km 해상에서 화재 발생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고 해역 인근에서 대성호와 함께 이날 오전 3시까지 투망작업을 했던 또 다른 선박이 연기가 치솟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이날 오전 4시를 전후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대성호는 지난 8일 오전 10시38분 통영항에서 갈치잡이 조업차 출항하여 18일 오후 8시

38분쯤 귀항할 예정이었습니다. 원래 예정했던 입항시간을 넘긴 이유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점에서 추후 철저한 점검과 개선이 뒤따라야 합니다. 건조된 지 17년이 된 이 선박은 섬유 강화플라스틱(FRP) 재질 신속한 구조와 실종자를 찾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화재 발생경위는 아직까지 정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19일 오전 7시5분 제주해상서 서쪽 76km 해상에서 화재 발생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고 해역 인근에서 대성호와 함께 이날 오전 3시까지 투망작업을 했던 또 다른 선박이 연기가 치솟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이날 오전 4시를 전후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대성호는 지난 8일 오전 10시38분 통영항에서 갈치잡이 조업차 출항하여 18일 오후 8시 38분쯤 귀항할 예정이었습니다. 원래 예정했던 입항시간을 넘긴 이유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점에서 추후 철저한 점검과 개선이 뒤따라야 합니다. 건조된 지 17년이 된 이 선박은 섬유 강화플라스틱(FRP) 재질 신속한 구조와 실종자를 찾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화재 발생경위는 아직까지 정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19일 오전 7시5분 제주해상서 서쪽 76km 해상에서 화재 발생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고 해역 인근에서 대성호와 함께 이날 오전 3시까지 투망작업을 했던 또 다른 선박이 연기가 치솟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이날 오전 4시를 전후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대성호는 지난 8일 오전 10시38분 통영항에서 갈치잡이 조업차 출항하여 18일 오후 8시 38분쯤 귀항할 예정이었습니다. 원래 예정했던 입항시간을 넘긴 이유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점에서 추후 철저한 점검과 개선이 뒤따라야 합니다. 건조된 지 17년이 된 이 선박은 섬유 강화플라스틱(FRP) 재질 신속한 구조와 실종자를 찾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편집국 25시

해녀와 4·3 다룬 소설에 빠져든 미국 사회



부미현

정치부 차장 bu8385@halla.com

최근 미국 소설가 리사 시(Lisa See·64)의 소설 '해녀들의 섬(The Island of Sea Women)'이 미국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소설은 제주 해녀와 제주 문화, 제주 4·3을 소재로 일제강점기인 1938년부터 최근인 2008년까지 제주 해녀와 주변인들이 겪은 삶의 이야기를 담았다.

최근 캐나다에 사는 기자의 제주 출신 지인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소설을 언급했다.

캐나다의 한 호텔에서 근무 중인 그는 미국인 고객 여러 명이 자신이 제주출신임을 알자 소설을 언급하며 매우 반가워했다고 한다.

지인에게 해녀가 실존하는지, 고향의 해녀가 물질을 하는 게 사실인

지 경외감 가득한 눈길로 질문도 쏟아냈다고 한다.

한 두 번이 아니라 몇 차례 이같은 경험을 한 그가 놀라운 일이었다며 기자에게 전해준 이야기다.

차가운 바닷물 속에 들어가 물질을 하는 고향의 제주 여성들, 그리고 그들이 겪은 4·3이라는 제주의 비극적 역사가 미국인들에게 울림을 준 것이다.

이같은 미국 현지 사회의 관심은 고무적이다. 이 소설을 통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제주 해녀는 물론, 아직 아픔이 해결되지 못한 4·3이 미국 일반 국민들에게도 알려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작가는 한국어판 독자들에게 전하는 글에서 이 소설을 쓴 배경과 4·3에 대해 자세히 언급했다.

어쩌면 미국의 독자들은 지난 6월 미국 UN본부에서 4·3을 이야기하는 국제 인권 심포지엄이 열린 이유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4·3의 완전한 해결이 이뤄지지 않은 현실에도 관심을 갖게 될 지 모른다.

이 소설이 제주 해녀와 4·3의 세계화의 작은 발걸음이 되길 기대해 본다.

뉴스-in

국민과의 대화 마지막 장식한 '제2공항'

제주 패널에게 질문 기회

○...19일 국민적인 관심 속에 전국에 생방송 된 문재인 대통령의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제주 제2공항 문제가 대미를 장식.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문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마련된 것으로 사전 시나리오 없이 즉석에서 질문자가 지명되고, 질문 내용도 제한을 두지 않은 채 진행.

국민패널 300명은 53대 1의 경쟁을 뚫고 선정됐고, 질문자는 이중 단 17명이었는데 가장 먼 곳인 제주에서 온 패널에게 마지막 질문 기회가 부여.

성인지 예·결산 안내서 발간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지난 19일 국내 지자체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지방의회의 성인지 예·결산 심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안내서를 처음 발간했다고 홍보.

'지방의회 성인지 예결산 심사 안내서 개발: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연구책임

자 강경숙)는 일반 예산체계와 연동해 성인지예산제도 전반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

이은희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은 "이 안내서가 제주도의회의 성인지 예·결산 심사과정에 널리 활용돼 성인지예산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시.

불법촬영 탐지장비 대여

○...서귀포시가 불법촬영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지역주민과 지역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민간대여 서비스'에 나서 눈길.

탐지장비 대여는 읍면동과 시설행정부에서 보유중인 전자파 탐지기기와 렌즈탐지기 총 30세트를 활용, 최대 5일까지 무료로 대여.

시 관계자는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위해 공공건물청사내 공공화장실 총 347개소를 자체 점검하고, 주민들도 주변을 점검할 수 있도록 탐지장비 대여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

부고 박순철(前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장) 아버지 밀양박공 동을(향년 91세)께서 서거 2019년 11월 19일 18시 45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부고 하신행(국세청) 어머니 해평 김씨 해인(향년 67세)께서 서거 2019년 11월 20일 10시 3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전주이씨 중화(향년 92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주도정 소식 소회전 주변 5M이하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의 날 일사: 2019. 11. 27.(수) 13시~16시, 19시~21시 / 제주 전역